

연중 제16주일

기도서 394 면(A해)
 제1독서: 지혜 12, 13. 16-19
 제2독서: 로마 8, 26-27
 복음: 마태 13, 24-43

숲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감론



들을 귀

강덕창 신부

오늘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 들어라” 하셨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묵상해 봅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생물들은 다시 동물과 식물로 나뉘어지고 다시 동물은 여러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인간이라는 동물은 사물을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맡고 맛을 아는 다섯 가지 감각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즉 이성(정신,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이성과 그 활동은 오관으로 지시할 수 없다.

이성을 가진 인간을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피부, 골격, 언어, 풍습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각의 벽에 부딪혀 그 한계 내에 머물고 있는 사람과 그 벽을 넘어서 이성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육체의 오관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하고 물질이 기쁨의 원천이 되며 세상적인 것과 육감적인 것만이 그들의 세계 반경이다. 그러나 이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와 물질 이상의 것을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을 볼 줄 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의 오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것으로 육보다 깊고 넓은 세상을 보고 듣고 냄새 맡으며 살아가다.

다음으로 이성적 인간은 다시 이성에 머물고 있는 사람과 더 나아가 신앙의 단계에로 발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성에 머무는 자는 이성의 오관이라는 벽에 갇혀 산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 그치고 만다. 그러나 신앙의 단계에 나아가는 자는 인간을 넘어선 하느님의 세계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그는 하느님을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을 보고 만질 줄 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종류 역시 수없이 많다.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여러 종류의 하느님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아버지라 부르셨던 바로 그 하느님을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을 보고 만질 줄 아는 눈, 코, 귀, 입, 손을 가지는 단계가 있다. 이 단계의 오관은 예수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며 신앙의 그것이다. 이 오관만이 사랑의 하느님 앞에 마주서게 해주며 하느님과 함께 하는 최상의 삶을 살게 해준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귀를 가지도록 합시다.

<진안 천주교회 주임신부>



방학을

즐겁게 보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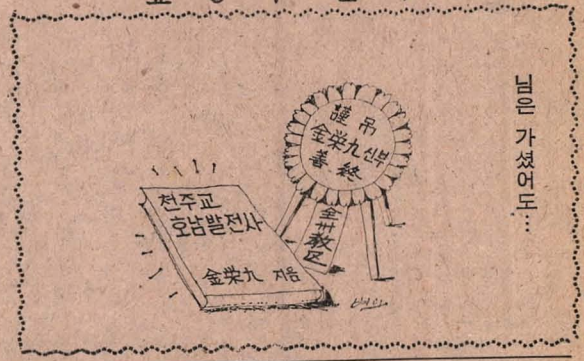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심약(心弱)해서 큰일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쪼들어 온 유교적인 인습과 세상을 살아가는(소위 出世) 방편의 하나로 교육에 대단한 열을 올리고 있다. 교육이 사람을 사람되게 가르치는 것일진대, 어째서 그토록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의 심약을 걱정하게 되었는가? 이는 분명히 오늘날의 교육이 안고 있는 맹점의 소산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교육목표가 전인교육(全人教育)에 있다면, 교육은 나 하나가 날렵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교육은 모름지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다 더 나은 세계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세상안에서 나의 이상과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길을 제시하고 배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교육은 어떠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조석변(朝夕變)의 졸속 교육행정으로 교사도 학생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직 상급학교 진학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해서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은 더욱 불안하고, 또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여름은 중고생들의 방학이 줄어들게 생겼다. 성년이 넘어 대학생들은 방학도 길다. 그런데 어린것들은 보충수업까지 받아야 하니, 자라나는 새들이 언제나 기를 펼 것인가. 아이들이 심약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말해서 지나칠까? 과외수업 근절은 소위 정화차원에서 다루고, 학교에서의 특별지도를 금한 것이 엇그제가 아닌던가. 그런데 이제는 보충수업을 하라니, 이는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칠까? 교회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한다.

숲정 이 산책





十 주여,
고 김 베드로(영구)
사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조 사

신부님 영전에

김 진 소 신부

<신부님 약력>

- 1902. 2. 4 수류에서 3남매 중 막내로 출생
- 1929. 5. 25 대구 성 유스페노 신학교 졸업, 사제 서품
- 1929. 5. 26 화산 천주교회 보좌신부 부임
- 1931. 1 군산 천주교회 주임신부
- 1934. 2 이리 천주교회 주임신부
- 1937. 5 교구청 경리 피임
- 1937. 12 재단 이사 임명
- 1938. 6 남원 천주교회 주임신부
- 1941. 5 이리 천주교회 주임신부
- 1943. 2 안태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 1947. 4 화산 천주교회 주임신부
- 1947. 11 재단 이사 임명
- 1948. 8 전주 성심여자중학교 교장
- 1951. 5 삼례 및 고산 천주교회 주임신부
- 1956. 함열 천주교회 주임신부
- 1961. 7 정읍 천주교회 주임신부
- 1961. 12 순창 천주교회 주임신부
- 1962. 12 교구 상서국장
- 1963. 7 부안 천주교회 주임신부
- 1969. 12 이리 천주교회 주임신부
- 1970. 8 남원 천주교회 주임신부
- 1971. 5 군산 중등 천주교회 주임신부
- 1971. 8 휴양
- 1984. 7. 12 선종

신부님, 평소에 당신이 아껴 주셨고 사랑했던 이 많은 동료 사제들과 교형 자매들이 와 있는데 왜 안 일어나십니까? ...중략... 신부님을 우리는 웃으면서 존중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가능하다면 평생을 웃으면서 지내실려고 노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웃으며 지내신 일생 앞에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욕된 우리의 모습이기엔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신부님, 신부님은 사실 누리실 복을 다 누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얼마나 큰 복을, 영광을 누리셨습니까? 이 교구의 호남 교회사를 정리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 교장에서 성인이 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시더니 마지막 그 소원을 영광스럽게 이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신부님은 웃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신부님은 정말로 천당에 가실 날을 고대하시면서 살으셨습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천당에 가실 날을 고대하시면서 병고에 신음을 괴롭다하지 않고 이뤄내셨습니까? 아니, 얼마나 천당이 그리웠기에 당신이 언제 돌아가실지 돌아가실 날을 미리 예언하셨겠습니까? 신부님, 떠나시면서 이제 우리 홀려간 옛날 얘기 좀 합시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홀려간 얘기 하겠습니까?

신부님, 신부님은 사목자이셨습니다. 얼마나 사목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셨는지 병상에서도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글을 발표하셨습니까? 신부님은 참 이 교장의, 우리 교구의 사목자이셨습니다. 신부님은 젊은 나이로 사제가 되신 이후로 한번도 이 교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며 동서남북 어느 구석엘 가도 신부님의 사목에 발길이 끊어진 날이 없었습니다. 신부님의 사목생활에 신부님은 우리 교구가 영광스럽게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인의 자치교구라는 영광스러움을 맞이 할 준비를 잘 이뤄내셨습니다. 신부님이야말로 우리 교구의 역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정리하신 유일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이 교구를 사랑하신 분이 고 이 교구의 증언자이시지 않습니까? 한편, 정말로 신부님은 하느님을 증거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교구가 자치교구로 출발할 때 우리의 가난이란, 한 끼의 밥까지도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신부님의 목전에 그러한 증인들이 들러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목의 발걸음에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일체의 치하에서 얼마나 신음하면서 체험하셨습니까? 더군다나 민족의 상전에서 치른
(3면 하단에 계속)

□ 감사합니다

지난 12일 선종하신 고 김 베드로(영구)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예절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의위원회 위원장 황 인 규 신부

구 고 창 집

보 신 탕 전문

☎ ② 6963

한성여관 뒤

이 아나다시아

눈! 눈을 보호합니다
각국 수입안경테 다량확보
<도수안경 전문>

안경사 자격증 업소
제 일 안 경 원

전동성당 사거리 신호등앞
구 성모병원 앞
대표 김 창 록
② 0102

군산
초 록 미술 학원

국교생 방학특강반 모집

☎ ③ 6200

미원동 사거리 남국교앞

김 선 희(마르타)

곽 미 자(루시아)

영 진 비 디 오
음 악 사

결혼·회갑·각종행사
촬영 전문

비디오 테프 판매 교환
카세트테프·레코드판매

전화 2-4094

채 석 자(글라라)

(전주백화점~한아름백화점 사이)

□ 교황님 말씀



우리는 인간 존엄을 위협하는 모든 것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묵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민족 전체든, 인간이 자기의 참 소명을 따라 살권할 수 없게 하는 것에는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저항하도록 명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무엇보다도 무용한 단죄에 그치지 말기를 요구하면서, 건설과 사랑으로 이끌어 줍니다. 유네스코에서 모든 국가들 앞에서 선언한, 오늘도 적절한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되풀이 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거나 이 유로서가 아니고 그 자신으로서, 오직 그 자신으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뿐더러 인간을 그저 인간이기에 사랑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그 만이 지니는 존엄 때문입니다. 인간에 관한 선언은 그 전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 사명의 본적적 내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문화인과의 만남에서 84. 5. 5)

□ 제2차 푸른군대 피정에 초대합니다

푸른군대 한국본부가 주최하고 레지오 마리에 한국 세나투스가 후원하는 제2차 푸른군대 피정에 초대합니다.

일시: 8월 2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파견미사)
장소: 전주 노동동 성당
준비비: 회비-1,000원, 도시락, 미사도구
강사: 박 도식 신부님, 하 안포니오 신부님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기념
미켈란젤로 작품 사진전

한국 방송공사가 주최하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기념 미켈란젤로 작품 사진전이 전주에서 열리고 있다. 씨스틴 성당의 벽화, 피에타상 등 신자로서 한번 볼만한 전시회이다.

기간: 7월 16일~30일 장소: 전주 예술회관
입장료: 일반(대학생)-500원, 학생-300원

□ 200주년 기념품 상행위에 대한 경고

요즘 물지각한 상인들이 교회 및 교회사업을 빙자하여 가정방문을 하며 200주년 기념 상품인양 물건을 팔아 신자들이 불편과 피해를 호소해 오고 있다.

본 교구에서는 어느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승인하여 판매를 허락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본당이나 본당 구역에서의 상행위는 교회와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면에서 계속> 6·25사변의 그 치욕 속에서 신부님은 육고를 치루셨습니다. 육고를 치루면서 사제는 사랑의 봉사자란 것을 굳게 보여주셨고, 진리를 증거하는 자라는 것을 매롭게 증명하셨습니다. 여기, 그때 같이 하느님을 증거하던 동료 사제들이 묵묵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신부님은 의로운 병상에서 항상 교구를 걱정하셨습니다. 오히려 병상에서의 병고의 고통을 교구의 발전에 희생의 한 뼘을 차지한다면 영광이 없겠다는 말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신부님,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이사를 가십니다. 분주하게 지금 이사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신부님은 이사를 가셔도 결코 우리곁을 떠나실 분은 아닙니다. 우리 사목이 구축구석에서 실천될 때마다, 이 교구를 걱정할 때마다 교구 안에서, 또는 당신이 일하시는 일터 안에서 신부님을 항상 얼굴로 마주치면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신부님, 참으로 염치없고 외람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부님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신부님 안녕히 가십시오.

<호남 교회사 연구소>

요십이(572) 김병오

고김영구신부님
장례대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3년간 김신부님을
모시고 수교하신
이수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야
할분이 또
한분 있습니다

장마철인데도
장례식날
비를 안오게한
하느님입니다.

군산 태광 약국

☎ 1800
구시장 사거리

교우 여러분의 탄생질환
및 진감상담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설치한

보안당 렌즈

가볍고, 얇고, 원근조절 렌즈,
김 안서리는 렌즈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겠
습니다.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아카시아 풀·로얄제리
생산가로 드립니다

한성 양봉원

김 자 영(토마스)
전주 경기전 옆
☎ 2-2731

희 소 식

독사뱀 물린 사람 전문
치료 5대째
단시간 치료 완치할
연락처: 전주시 전미동
1가 전당리 시내버스종점
☎ 5-3544
송 준 의(발라바)

- 동양란 전문 • 수입분재 기구 일절
- 판엽식물 일절 • 농장 직영

중 앙 화 원

(장소: 동서관통도로 구법원 옆)

꽃꽂이 연구실 개강
※ 교우분들 특별 우대

대표 심 스테파노 ☎ 6-4700



- 7월 교미시움 회의: 22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대상-꾸리아 및 직속 Pr. 간부 전원
- 성직자 수도자를 위한 성서 연수회: 23일~25일, 장소-가톨릭 센터, 교과-바울로 서간·로마서, 강사-양 요섭 신부, 등록비-8천원(숙박비-추가경비 1,200원)
- 시민강좌 개설: 24일 오후 8시, 장소-중앙성당, 강사-송 건호 선생(사학가), 주관-교구 교육국
- 성령 은혜의 밤: 25일 오후 7시30분, 장소-파티마 성당, 철야기도 있음
- 성서 40주간 피정(어연서): 26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센터, 회비-2천5백원
- 중·고생 여름 산간학교: 28일 오전 11시~31일, 장소-완주군 고산면 읍내리(고산교회)
- '84 제2회 성령세미나: 28일 오후 2시~29일 오후 6시, 장소-센터, 대상-본당 사도회 임원, 각급 단체 간부, 기타 평신도, 참가비-7천원, 준비물-신·구약성서, 공동체 성가집, 필기도구

□ 평협 전화 신설 75-5496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 ①

(중양)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윤정현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김인협

-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23일~28일, 매일 오전9시~12시 부모님들의 관심, 협조 바랍니다
 - 군인신자 주소: 본당 사무실 제출요
 - 중·고교구 산간학교: 28일~31일, 부모님들 관심과 협조를...
 - 주보 "순정이": 한세대에 한장씩만
 - 방ziger 3회: 29일 오후 2시
 - 주일학교 영세·첫 영성체 교리: 24일 아침 9시부터
 - 산간학교 준비교리: 24일~27일 아침 9시
 - 벽돌봉헌: 24,955장 봉헌
- 지난주 봉헌금: 963,710원 교무금: 445,300원
감사헌금: 익명5천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수녀 ⑥7032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이성우
사도 회장 이홍재

- 정성과 희생으로 새삼전 건립하자: 박세욱-100만원, 오용규-50만원, 박양금-금반지 3돈, 정영혜-30만원, 윤찬수-24만원, 김중화·방인철·박삼순·왕동주·박환주·임선호·강미순-각20만원 소계: 3,440,000원 누계: 80,880,000원
 - 여름 성경학교: 본당 및 아파트-23일~28일까지 매일 오전9시~12시까지 부모님들의 관심있는 협조바랍니다
 - 학생 하계 수련회: 30일~8월 3일까지(부안·중계) 참가 학생들의 열의기도-21일 오후4시부터~29일까지 구역 봉사자 모임: 27일 저녁 8시
 - 유아 영세식: 28일 오후 3시 대부모님 모시고 오후 2시까지 사무실에 나오세요
 - 신성 후원금 봉헌합니다: : 부족액 765,008원
 - 교무금 납부의 날: 교무금은 매일 분납하여 본당운영에 협조합니다
 - 공소 순회미사: 신원리공소, 28일 저녁 8시
 - 아파트 소식: ① 주일미사시간 변경-매주 오전10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② 접수증-영세 및 첫 영성체 대상자는 다음주까지 접수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426,830원 아파트: 138,100원
교무금: 197,000원 아파트: 64,000원

(덕진)

신부(3) 2182 주임 신부 김 불 회
수녀(72) 1222 보좌 신부 김 요 안
사무(72) 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 주일학교 방학식: 오늘 3시 미사
 - 전례 교육분과 위원회: 25일 밤 8시
 - 재경·봉사분과 위원회: 27일 밤 8시
 - 중·고학생 수련대회: 27일~30일(진안, 부곡)
○ 같은 장소에서 31일~8월 3일까지 성인들 자유피정을 실시합니다.(본당 천막설치) ○ 하기수련 대회중(27일~8월6일)본당 평일미사는 저녁에만 있고 야영장에서 매일미사 봉헌함
 -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개설: 25일~29일 오전8시30분
 - 유아세례 및 보례: 8월 10일 어머니미사후(10시)사무실에 신청
 - 금주본당 청소년회·성심부녀회(28일 오후3시)
 - 다음주 모임(예고): 전복회
- 지난주 봉헌금: 523,210원 교무금: 105,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영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성원

- 사도회: 다음주일 저녁미사후
-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23일~28일 오전 10시~12시 부모님들 관심을 가지고 보내주세요
- 성우회 단합대회: 8월 5일 공식미사후 출발, 장소-남관 중점하차 우측200m지점

- 중고생 산간학교: 28일~31일(교구단위 고산에서) 참가비-중 4천원·고 3천5백원
 - 중고생 임원회: 오늘 미사후
 - 성직·수도자 성서연구: 23일~25일
 - 성야고보사도 축일: 26일
 - 예비자 교리: 매주일 공식미사후, 매수요일 오후8시
 - 금주청소: 월-다위탈, 토-셋별
 - 차주: 월요일-황금궁전, 토-죄인의의탁
 - 본당 성서공부: 매주-월·수·목 오후 8시 30분~9시 30분 한부제된 지도
 - 금주전례: 해설-황만균, 독서-①장준희 ② 정운주
 - 차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천 건 ② 조성호
- 지난주 봉헌금: 137,780원 교무금: 45,150원

(서학동)

신부 ⑥8307번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⑥2276번 사도 회장 김낙균

-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23일~28일 매일 오전9시~12시 30분 부모님들의 많은협조 부탁드립니다
 - 중·고생 산간학교 참여: 28일~31일, 장소-고산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교리교사 하계 수련회에 협조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어린이 첫 영성체교리: 19일~8월 13일, 교리시간-매일 오후 5시
 -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김민수 ② 김병희
- 지난주 봉헌금: 336,180원 교무금: 167,000원

(순정이)

전화 ⑥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⑥9567 사도 회장 김수겸

- 중·고생 수련회: 25일~28일까지, 장소-순창군동계
 - 여름 성경학교: 23일부터 시작(28일까지)
※ 부모님들의 적극 후원 바랍니다
 - 금주 평일미사: 25일~27일까지 평일미사 없음
 -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이동현·최윤희
 -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선종현·김선숙
- 지난주 봉헌금: 207,400원 교무금: 330,00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치삼
사부 ⑥3222 보좌 신부 정영호
수녀 ⑥8347 사도 회장 김병오

- 교미시움: 오늘오후 2시
 - 성 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 4시
 -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오후 1시 30분
 - 주일학교 6학년 수련회: 23일~25일 장소-부안중계
 - 주일학교 하계 특별교리: 30일~4일 9시~11시 30분
 - 청년 연합회 단합대회: 일시-26일~28일, 장소-중계 내반산 많은 참석바람, 참가비-5천원
 - 글로리아 성가대: 성모승천 기념 음악 미사의밖 연습중
 -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상태, 독서-①최병래 ② 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김병오 ② 정진훈
저녁미사: 해설-최원일, 독서-①최중만 ② 이훈
- 지난주 봉헌금: 801,490원 교무금: 536,50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주임신부 박종신
수녀 2-4804 사도회장 이교성
사부 2-0915

- 사목방문: 26일 오전 9시 30분 주공 1단지
 - 어린이 성경학교 및 수련회: 23일~28일
 - 성령 은혜의 밤: 25일 저녁 7시30분(철야기도 있음)
 - 자도회: 오늘 공식미사 후(유치원)
 - 유아세례: 다음주일 학생 미사후(10시)
 - 감사합니다: 성당 의사 께를 익명-10만원
- 지난주 봉헌금: 303,271원 교무금: 172,000원